

차 례

결과보고서 요약문

2018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

1. 사업 내용

- 1) 당초계획
 - 개요
 - 추진배경 및 목적
 - 기본방향
 - 기대효과
 -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
 - 참여인력
- 2) 실제추진 현황
- 3)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
 - 사업성과
 - 관련분야 기여도

2. 예산

- 1) 예산 계획
- 2) 실제 예산 집행

3.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

- 1) 자체평가
 - 사업평가
 - 미흡한 점(한계) 및 개선(보완)할 점
 - 향후 계획(내년 계획)
- 2) 건의사항
 - 사업 진행 관련
 -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
 - 기타

4. 관련자료

- 대표적 사업 실적

결과보고서 요약문

사업기관	북한·해외농업연구소		
사업명	통일대비 한·러·북 농업협력체계 구축 사업: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		
사업책임자	성명	소속	직위
	임정빈	농경제사회학부	교수
사업기간	2018.4.1.~2019.2.28	사업비	

1. 사업목표

- 지난 3개년 간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·해외농업연구소가 진행해 온 “통일대비 한·러·북 농업협력 체계구축 및 북한 농업인력 활용 시범사업”의 주요 연구결과로 도출된 핵심 사안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.

2. 사업의 내용

- 2017년도까지 청사진 수준이었던 연해주 영농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을 구체화함.
 - 식량작물에서 나아가 농기자재, 채소, 축산물, 식품가공과 관련된 협력사업모델 연구를 진행함.

3. 사업의 성과

- 영농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적, 경제적 이슈를 연구하였음.
 - 식량작물 이외의 현지 농업협력 유망사업분야를 도출하였음.

※ 1~2페이지 이내로 작성바랍니다.

북한·해외농업연구소

1. 사업 내용

1) 당초계획

□ 개요

- 사업명: 통일대비 한·러·북 농업협력체계 구축 사업: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
- 기관명: 서울대학교 북한·해외농업연구소
- 총 사업비: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○ 추진배경

- 2008년 세계적 식량 위기 발생 이후 우리 정부는 75%이상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식량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고, 특히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농장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.
- 연해주를 배경으로 한·러·북 3국 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은 안정적인 식량확보가 가능해질뿐 아니라 농식품 및 농자재 관련 산업이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, 러시아는 농지를 대여해줌으로써 임대료 수입과 자국민 일자리 창출, 농촌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, 북한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외화 획득 등이 가능할 것임.

○ 목적

- 농업협력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영농시범단지의 운영방안을 경제적, 행정적 측면에서 구체화함.
- 농업협력체계 구축 이전단계에서 연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및 유지하는 차원에서 2018 사업 기간에도 한국 정부, 러시아 진출기업, 북한·해외농업연구소 및 유관 기관들로 구성된 공동세미나를 개최함.
- 연해주 현지 및 북한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작목을 선정함.

□ 기본방향

- 지난 3년 동안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·해외농업연구소가 진행해 온 “통일대비 한·러·북 농업협력 체계구축 및 북한 농업인력 활용 시범사업”의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.
- 이전 연도의 연구주제인 농업협력모형 수익모델 발굴의 연장선에서 영농 시범단지 설립방안을 구체화함.
- 교육 및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수리스크 농과대학 및 연해주 농업연구소와 교류를 유지함.
-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기후적,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망 작목 선정을 위한 융복합 기초연구 추진
- 이전 연도의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함.
- 식량작물보다는 원예 및 축산분야나 농기자재, 식품가공분야에서 협력사업이 원활하리라는 피드백이 있었음.
- 이에 따라 본 연도의 연구에서는 식량작물 외의 유망사업분야를 발굴하는 것에 다소 주력할 예정임.

□ 기대효과

- 농업협력체계 구축의 경제적인 이점을 연구함으로써 해외농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.
- 한-러 극동지역 개발 ‘경제개발협력 투융자 플랫폼(20억 달러)’에서 영농시범단지과 농산업복합단지 조성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함.
- 우리나라의 연해주 대상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- 연해주 해외농업 진출과 관련된 기초연구의 범위를 확대함.
- 현재까지의 연해주 해외농업 진출과 관련된 연구는 우리나라의 식량확보 측면에서 곡물(식량작물)에만 집중되어 왔음.
- 하지만 식량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원예나 축산분야 등의 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음.
- 본 연구는 식량작물 외의 분야로 연해주 해외농업 연구의 외연을 넓힘으

로써 식량작물에 국한된 해외농업개발 연구의 외연을 확대함.

□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

일 정	추진 내용
1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농지원센터 건립 관련 문헌조사 수행 - 건립 위치, 필요 인력, 필요 설비 등 계산
2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해주 영농시범단지 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• 연해주 영농시범단지 시험재배 작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
3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해주 영농시범단지 모형의 수익모델 검토 - 진출 사례의 수익모델 구조와 현황 검토 • 연해주 영농시범단지 운영방안 검토 - 운영을 위한 기초협력사안 논의 - 운영 주체 및 협력기관 논의 - 해외 출장 간담회 1차 진행 • 연구결과 통일기반구축학술대회 발표(11/27)
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해주 영농시범단지 시험재배 작목 검토 - 연해주의 과거기후, 현재 기후 및 온난화를 고려한 작목의 선정 검토 - 작목 선정을 위한 전문가 면담 - 해외 출장 간담회 1회 추가 진행 • 연구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 진행

2) 실제추진 현황

□ 2018년도 연구결과 종합 보고서 작성

- 연해주에서 유망한 농산업 분야를 도출하여, 식량생산 외의 분야로 해외 농업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.
- 연구내용은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, 2월 사업종료까지 보완함.
- 해당 연구결과로 연해주에서 유망한 농산업 분야를 도출하여, 식량생산 외의 분야로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.
 - 생산-가공-유통형 사업으로 인삼, 양봉, 버섯가공품을 도출함.
 - 생산-유통형 사업으로 고랭지채소, 버섯배지, 종자를 도출함.
 - 가공-유통형 사업으로 축산가공품 생산을 도출함.
 - 유통형 사업으로 비료·농약과 농기계를 도출함.
 - 해당 사업들은 노동집약적으로 기존 연해주 해외농업(경종농업)보다 한·러·북 농업협력사업에 적합함.

<표> 유망분야별 사업내용

구분		생산	가공	유통
생산-가공-유통형	인삼	연해주의 인삼재배 인프라 구축	한국에서 인삼가공품 생산	생산된 인삼을 수집 한국으로 수입 후 가공
	양봉	양봉농가 조직화 피나무 꿀 생산 교육	각종 꿀 가공품 개발	수출품목으로 육성
	버섯가공품	버섯 재배농가 조직화	각종 버섯 가공품 개발	현지 시장 및 수출품목 육성
생산-유통형	고랭지채소	현지 고랭지 채소 생산단지 구축		한국으로 수출 경로 확보
	버섯배지	버섯배지 생산교육		한국으로 수출 위생·검역관리
	종자	현지 육묘공장 신설(장기)		한국산 종자 수출(단기)
가공-유통형	축산가공품		주요 축산물 가공품 생산	현지 유통망 확보 필요
유통형	농자재			현지 수요 종합 수입 대행 및 공동구매
	농기계			현지 수요 종합 수입 대행 및 공동구매

□ 러시아 현지 간담회 및 영농시범단지 설립 논의 진행

- 우수리스크에서 연해주 현지 농장 방문 및 현지진출 영농업자 간담회를 진행함(2018.07.06~07.08).
 - 현지 농장을 방문하고 농업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함.

<그림1> 출장 방문 현지 농업업체



- 현지 해외농업 진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영농시범단지 설립을 통한 농업협력모델에 대해 설명함.
-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, 현지 농업기술센터 방문 후 영농시범단지 설립 관련 논의를 수행함(2018.07.06~07.08).

<그림2> 우수리스크 농업기술센터 방문



- 2019.02.06.~2019.02.09. 일정으로 이와 같은 현지조사사 및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임.

3)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

□ 사업성과 (구체적 내용 기술)

- 2018.11.27. 서울대학교 2018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 발표를 진행함.
 - “통일대비 한·러·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향 : 연해주 진출의 가능성과 유망사업분야 모색”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.
-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주관으로 2018.12.11. 북한·해외농업연구소 세미나/북한농업 연구집담회를 실시함.
 - “김정은 체제의 북한경제실태와 농축산 전망,” “북한의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,” “통일대비 한·러·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향: 연해주 진출의 가능성과 유망사업분야 모색”의 3개 연구 발표를 진행함.
- 한국농어촌공사 2018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에 참가함.
 - “북한의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의 경제적 효과분석”으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음.
- 우수리스크에서 연해주 현지 농장 방문 및 현지진출 영농업자 간담회를 진행함(2018.07.07.).
- 해외 강사를 초청하여 농업협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.
 - 2018.04.26.에 Nguyen Van Song 베트남농업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“베트남의 농업역사: 1945년부터 현재까지”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실시
 - 2018.10.26.에 YOKO KIJIMA(木島陽子)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(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)교수를 초청하여 “농가의 위험 선호도 및 쌀 생산 연구: 우간다를 중심으로”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함.
 - 2018.10.26.에 Jakrapun Suksawat 콘깐대학(Khon Kaen University)교수를 초청하여 “태국의 농가 기술 채택 연구”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함.

□ 관련분야 기여도

- 연해주 한·러·북 농업협력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체화하였음.
 - 실제 투자 한-러 극동지역 개발 ‘경제개발협력 투융자 플랫폼(20억 달러)’에서 영농시범단지과 농산업복합단지 조성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함.

- 식량작물 외의 분야로 연해주 해외농업 연구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연해주 해외농업 진출과 관련된 기초연구의 범위를 확대함.
 - 이 과정에서 민간 입장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분야를 발굴하였음.
- 학술교류활동에서 북한을 주제로 학제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.
 - 북한·해외농업연구소 세미나/북한농업 연구집담회 개최나 한국농어촌공사 2018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북한농업을 주제로 학문분야 간 교류를 촉진함.

2.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

1) 자체평가

□ 사업평가

- 사업의 적절성
 - 남·북관계가 개선되고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 연해주 해외농업개발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적절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함.
 - 농업협력에 적절한 타 사업분야를 발굴하여 이전 년도에 지적된 경종농업에서의 북한노동력 적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함.
- 사업의 효율성
 - 보다 경제성이 있고 남·북 교류차원에서 협력효과가 큰 사업분야를 발굴하는데 성공하였음.
 - 축산 및 원예농업분야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업체들이나 농업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.
- 사업의 영향력
 - 연해주 현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에게 농업협력모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촉진함.
- 사업의 발전가능성
 - 본 사업은 ‘한-러 극동지역 개발 경제개발협력 투융자 플랫폼(20억 달러)’에서 북한과의 농업협력에 투자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음.

□ 미흡한 점(한계) 및 개선(보완)할 점

- 2019년 1월 현재, 원래 계획만큼 기상학적인 부분을 연구결과에 많이 반영하지 못하였음.
 - 채소 작목별 재배지역 도출 및 적합품종 도출이 현 단계에서 미흡함.
 - 2월 연구종료시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할 예정임.
- 축산 관련 연구계획 구체화가 다소 미흡함.
 - 축산과 관련된 현지 규제문제 등을 추가로 파악하고 사업의 경제성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 - 2월 연구종료시까지 관련 내용 보완할 예정임.

□ 향후 계획(내년 계획)

- 2019년 기준으로 연구결과를 투자유치 논리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할 예정임.
 - 올해 연구에서 유망사업분야를 도출하였으나, 해당 사업분야는 기존의 식량 농업과는 달리 기 진출업체들의 기반구축이 미미한 상태임.
 - 민간 및 공공차원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신규 사업분야들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.
 - 따라서 신규년도 과제에서는 새로 도출된 신규사업분야의 사업 모델 구체화 및 경제성평가에 집중할 예정임.
- 인접 중국 지역 관련 조사를 추가로 진행함.
 - 생산 농산물의 수요처, 농기자재 수입처로써 인접 중국 지역이 매우 중요하므로, 인접 중국 지역의 농산물 수요와 농기자재 판매 현황을 조사함.

3. 건의사항

□ 사업 진행 관련

- (해당사항 없음)

□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

- (해당사항 없음)

□ 기타

○ (해당사항 없음)

4. 관련자료

□ 대표적 사업 실적

- 북한/해외농업 세미나 북한/농업 연구집담회 개최 및 연구결과 공유
 - 일시: 2018년 12월 11일(화) 16:00~18:00
 - 장소: 서울대학교 200동 3층 소회의실(3006호)
 - 프로그램 구성: 아래 표 참조

시간	일정
15:50~16:00	등록
16:00~16:10	개회식/환영사 임정빈 북한·해외농업연구소장
16:10~16:40	김정은 체제의 북한경제실태와 농축산 전망 김동수 연구위원/국가안보전략연구원
16:40~17:10	북한의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조충희 연구위원/굿파머스
17:10~17:40	통일대비 한·러·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향: 연해주 진출의 가능성과 유망사업분야 모색 임정빈 북한·해외농업연구소장
17:40~18:00	토론 및 정리
18:00~19:30	저녁식사